

목포에 ‘마른김 산지거점 유통센터’ 들어선다

목포수협 해수부 사업 선정...2027년 준공

미래 먹거리 김 산업 특화도시 도약 기회

목포시에 마른김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물의 물량을 규모화해 전처리, 가공, 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산지거점 유통센터가 들어선다.

16일 목포시·목포수협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남권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남 대표 수산물인 마른김의 수급 안정과 유통 효율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김산업 유통 안정화 및 품질 경쟁력 확보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FPC는 목포시가 추진 중인 ‘마른김 국제거래소’와 연계 운영도 계획하고 있어, 지역 내 김 산업의 집중화·전문화와 함께 국내 최대 김 가공·유통 거점 단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위치는 목포시 죽교동 602-1번지, 목포수협 배후부지다.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규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마른김 가공라인과 냉동 보관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김은 전국 총 생산량의 88%가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수산물 가운데 대표적인 수출품이자 품목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현재까지 목포 지역에는 가공 및 보관시설이 부족해 상당한 양이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실정이다.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건립 공모사업 최종 선정 예정부지.

〈목포수협 제공〉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규모 마른김 가공·저장 시설 구축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FPC가 김산업

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이번 FPC 사업은 전남이 단순한 전국 최대 김 생산지를 넘어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김 유통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라며 “마른김 생산은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품질은 여전히 부족해 인접 국가보다 단가가 낮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이 품질 향상과 계약재배 시스템을 직접 관리해 체계적인 생산·유통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목포를 대한민국 김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군 ‘영광터미널 골목형상점가’ 지정

터미널 일대 43곳...전통시장급 혜택

영광군은 “최근 ‘영광터미널 골목형상점가’를 영광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 록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영광군은 지난해 말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이후 영광터미널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난 5월29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영광읍 신남로 186 일대 터미널 종합상가 및 지하상가 포함 43개 점포로 약국, 병원,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정부 공모사업 신청 가능 등 전통시장 지원에 준하는 혜택이 제공돼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완도치유페이, 3개월 만에 23억 소비 “지역 경제 견인”

총 소비 금액 두달 새 4.7배 ↑

완도군이 추진 중인 인센티브 사업 ‘완도 치유페이’가 3개월 만에 23억원대 소비를 이끌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완도군은 16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완도치유페이를 통해 23억8천970만원의 소비가 발생했으며, 이 중 18억6천750만원이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총 소비 금액은 3월 2억6천만원에서 5월 12억6천원으로 약 4.7배 증가했고, 여행 경비 지원 신청 역시 870명에서 3천57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관광객 소비 분석 결과, 식당에서 7억9천만

원, 특산품 매장에서 5억8천만원, 숙박에서 4억3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지난 4·5월은 명절처럼 손님이 많이 몰려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웃었다.

이는 ‘소비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 방향을 정립한 결과로, 군은 하반기에도 계절별 테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 사업이 지역 상권을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이 만족하고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 도초도, 1억 송이 ‘섬 수국축제’ 팡파르

20-29일...‘숨결의 지구’ 관람도

신안군은 16일 “오는 20-29일 도초도에서 1억 송이 수국(사진)을 만끽 할 수 있는 ‘섬 수국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지난해 11월 수국정원 정상에 설치된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 ‘숨결의 지구’가 축제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많은 수국이 만개한 자연 속에서 현대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축제 기간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금가산선착장에서 도초 축제장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가산에서 출발하는 첫차는 오전 8시40분이며, 축제장에서 출발하는 막차는 오후 6시20분이다.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축제장으로 가는 배 승선 시와 축제장 매표 시 모두 필요하다.

30세 이하는 입장료가 무료다. 30세 이상은 수국정원 6천원, ‘숨결의 지구’ 1만원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다만, 연령에 따라 최소5천원 상당의 신안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벤트로 파란색 옷을 입고 방문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3천원을 내고 3천원권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숨결의 지구’ 1만원 입장료에는 수국정원 입장료가 포함돼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여유로운 관람을 하려면 오전에 들어와 오후에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 기자



‘인공태양 최적지’ 나주시, 에너지 수도 도약 행보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강한 의지 표명

도 공동 홍보...국정과제 반영 박차

나주시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도약을 위한 글로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핵융합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Fusion and Plasma Conference, IFPC)에 2년 연속 참가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와 핵융합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전남도와 공동으로 운영한 이번 IFPC 홍보관은 국내 참가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시는 홍보관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교통과 주거,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우수한 정주여건,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과 에너지 집적도 등 나주만의 강점을 전방위로 알렸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 국내·외 핵융합 유관기관, 연구자, 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나주 이전 의향 수요 조사를 병행해 실질적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수요 맞춤형 전력 수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홍보관을 찾은 많은 핵융합 전문가들은 광주·전남 공동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환경과 나주시의 지속적인 유치 활동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특히 나주시가 2년 연속 IFPC에 참여하며 보여준 일관된 정책 의지와 에너지 미래산업에 대한 준비 태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나주시가 최근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핵융합 학술대회(IFPC)에 참가해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는 후문이다.

현재 나주시는 핵융합 8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를 선제적으로 유치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주도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속 확대하면서 핵융합 중심의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2-4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KAPRA&KPS·DPP 콘퍼런

스’를 통해 국내·외 핵융합 석학들이 다시 한 번 모이면서 나주의 국제적 위상과 협력 기회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수도 실현을 위한 국내·외 협력과 전략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진도군, 조도 대마도 ‘식수 저수지’ 준공



수원지 2만t·정수시설 80t 규모

진도군은 “최근 조도면 대마도에서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한 식수 전용 저수지 준공식을 진

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김하수 진도군수, 박금례 군의회 의장, 김인정 도의원, 주만종 군의원, 주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고, 경과보고와 축사, 통수식 순으

로 진행됐다.

대마도 식수 전용 저수지는 2022년 12월에 첫 삽을 뜬 후 약 2년6개월 만에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해 수원지 2만t, 정수시설 1일 80t, 배수시설 80t 규모로 조성됐다.

김하수 군수는 “저수지를 통해 대마도의 식수 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주민들에게 더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군은 앞으로도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조도면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해 나배도와 관사도, 서거차도와 상·하죽도를 잇는 해저 관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진도=박세권 기자

영암경찰서 이전부지 활용, 영암주민이 결정

24일 영암읍행정복지센터서 토론회

영암군은 16일 “오는 24일 영암읍행정복지센터에서 ‘영암경찰서 이전 부지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 영암경찰서가 이전하고 나면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를 의논

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영암군은 큰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자원 재조명, 영암군민 공공복합공간 등을 잡고 있다.

토론회는 영암군민과 전문가,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 전문가 6명 안건 토론, 2부 주민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영암군은 사전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영

암군민의 필요와 관심을 이전부지 조성에 폭넓게 반영하고,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즐기는 장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사·문화·체험 등 영암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동 영암군 공영개발사업단장은 “기존 경찰서 부지를 영암군민이 즐기는 공공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활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설문조사와 토론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